

일하는 모두를 '있다', 일터에 안전이 '있다'

- 노사발전재단,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안전이음 프로젝트 추진 -

노사발전재단(사무총장 박종필)은 프리랜서·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'안전이음 프로젝트'를 기획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잇달아 추진한다.

이 프로젝트는 프리랜서·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.

첫 번째 프로젝트로 9월 2일 '배달라이더와 안전을 잇다'를 주제로 배달라이더 약 20명이 참여해 보호 장비 착용, 도로 교통 사고 예방 등 산업안전교육과 노동자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.

이어서 9월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릴레이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하고, “배려 배달 캠페인(과속 NO! 안전 YES!)”을 추진할 예정이다. 또한 근로자이음센터를 편안한 이동 노동자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.

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“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앞으로 택배노동자, 감정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나갈 계획이다”라며 “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,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노사발전재단 공정일터지원팀	책임자	팀 장	홍수민 (02-6021-1065)
		담당자	선임전문위원	김은지 (02-6021-1122)

□ 근로자이음센터 「안전이음」 프로젝트

- (개요)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근로자이음센터가 중심이 되어 「2025년 안전 일터 지원 프로젝트」 실시
- (내용) 각 노동자* 특성에 맞는 안전 일터 구축을 위해 교육, 캠페인, 상담 등 운영 예정
 - * 주요 대상자: 배달노동자, 택배노동자, 감정노동자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예정
- (일정) '25.9월~'25.12월

□ 「안전이음」 프로젝트 1편 <배달노동자와 안전을 잇다>

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배달 업무 수행 지원 및 노동자 개인의 건강 증진 도모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

① 배달노동자 건강관리 지원

- (개요) 배달노동자의 스트레스 저항도, 피로도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
- (일정·장소) '25. 9. 2.(화), 전태일 기념관(서울 종로구)
'25. 9. 4.(목),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(서울 마포구)
- (대상) 배달노동자 30여명 참여 예정

② 배달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교육

- (개요)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배달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 교육 실시
- (일정) 9월 중 10회 운영
- (장소) 청주·부산 근로자이음센터 등 전국 8개 지역
- (대상) 배달노동자 약 100명 참여 예정